KEPCO E&C **Family**

2020 **07+08**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각종 바이러스 질병들을
잘 이겨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전국의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합시다.
이번에도 코로나19 잘 이겨 냅시다. **힘내라! 대한민국!**

한국전력기술

2020 07+08

KEPCO E&C Family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통권 459호 2020년 7,8월호(격월간)

발행인 이배수
발행일 2020년 7월 1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rainbow@kepco-enc.com

인 쇄 동아인쇄(주)(054-433-4454)

〈햄릿의 지구, 하늘, 인간 이 모든 실체가 먼지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대사에서 발췌〉

이 멋들어진 구조물인 지구가 내게는 척박한 돌기처럼 보인다.
가장 탁월한 하늘 덮개인 공기, 보게나, 이 황홀한 내물림,
황금빛 불로 격자 세공된 이 장엄한 지붕
-이것이 내게는 더러운 역병의 거품 덩어리에 불과해 보인단 말야.
그런데 이 먼지 덩어리, 인간은 나에게 무엇인가?

04 명사칼럼
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06 Brief News
이배수 사장,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 참여
CEO 주재 코로나19 비상대응추진반 회의 개최
김천의료원과 지역상생 의료복지 협약 체결 및 사랑의 헌혈행사 개최
2020년 상반기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2020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원석 원장 내방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술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내외 부유식 해상풍력 전문기업·기관 업무 협약 체결
장세용 구미 시장과 사업개발 방안 협의
제2차 에너지산업 정책연구 워크숍 개최
동반성장 실천을 위한 에너지혁신성장펀드 참여
김천시 에너지 혁신성장 지원사업 적극 추진
김천 드림스타트에 후원금 전달
국제신용평가사(Moody's)로부터 신용등급 A2 획득
SR과 청렴 감사업무 상호교류 협약 체결
김천구미 KTX 역사 내 회사 영상 광고 시작

10 COVID-19 View
COVID-19 방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 자랑스런 한기인
경영관리본부 윤혜순 팀장

14 팀소개
원자로설계개발단 개발기획팀

16 가족 탐방
미래전략연구소 기술기획팀 정길화 차장

18 직원 참여 마당
작은 중세 유럽 도시, 체스키크롬로프

19 이달의 한컷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20 Project of KEPCO E&C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을 위한 캐스크 기술개발
OASIS CASK

22 지상전시회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

24 나의 취미
한잔으로 보는 나의 한잔 라이프 - 류도환 사원

26 Shall We Meet?
마라톤의 작은 거인 경비실 이종현

28 만구 내 방식 영화보기
멀홀랜드 드라이브 : BBC 100대 영화 선정 1위

30 세계도시탐방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는 페루의 리마, 마추픽추

34 맛집 탐방
대전 신성동 숯골원 냉면

36 술익는 마을 : 우리 술을 찾아갑니다
350년 역사와 함께 해온 경주교동법주

38 찾아가자! 경북
선산 장날에 가다

40 협력회사 소개
우성스페이스 건축사사무소

42 Culture
시집 『햇볕 좋다』 외

44 코로나 뒷이야기
코로나19 극복 광고 기획이 무산된 이야기

47 사보기획이야기
독자와의 수다

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참다운 행복은 진정한 가치구현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김 형 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前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前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소장

일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을 즐기는 것이다.
즐긴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일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을 위해서 일을 하며 그 일의 가치를 창출해 내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행복다운 행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칸트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비록 하는 일은 학문, 예술 등 정신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직업이 아니라고 해도 일에서 오는 성취의식과 결과는 정신적인 가치와 연결된다. 경제관념을 갖고 기업을 하는 사람도 그 사업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게 되어 있으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내는 기술자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건축가는 물질적 재료를 갖고 집을 짓는다. 그러나 그 성취된 집은 생활의 터전이 되면서 예술적 가치도 동반하는 법이다.

우리들 주변에서는 자가당착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일을 사랑하지 않거나 기피하면서 행복을 차지하겠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일을 또 다른 무엇, 즉 출세나 명예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성취욕은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성취의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일의 가치와 부합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무가치하며 이기적인 욕망에서 하는 일에는 행복의 가치가 뒤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물질적인 소유에 있어서는 자족을 알아야 한다. 자족은 만족감을 가져다주고 그 값있는 만족의식이 곧 행복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남아 있는 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다. 오히려 물질 즉 경제적 삶에 있어 나를 위해서는 적게 가지고 남에게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기보다는 만들어 가는 것이다. 마음의 절제와 자족감을 얻는 것도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일의 가치를 창출하며 그에 따르는 성취감을 갖는 것도 지혜로운 노력의 대가였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개척해 가는 일도 자기반성을 동반하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 내는 주체는 우리들의 인격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동물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를 추구하는 노력과 더불어 행복이 가능했으며, 높은 인격을 갖춘 사람일수록 더 고귀한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삶이란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사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질적인 것을 교류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사귐도 전개되고 있지만 그 모두는 인격적 사귐이 부분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행복도 서로 주고받는 데서 형성되는 것이다. 주기만 하는 행복도 없으며 받기만 하는 행복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 주는 원천은 사랑의 교류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고 행복을 동반하지 않는 사랑은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고의 행복은 인격이라는 생각이 정당하다면 모든 행복은 사랑에서 탄생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삶이다. 위해 주려는 생각과 행위가 곧 사랑인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주는 자세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며 사랑과 행복의 풍부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그런 정신 즉 적게 받고 많이 주려는 삶을 우리는 봉사의 정신이라고 말한다. 봉사는 사랑의 극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장 값있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 가장 고귀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참다운 행복은 진정한 가치구현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과 봉사의 삶이다. 그렇게 본다면 봉사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정신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E&C

KEPCO E&C News

이배수 사장,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 참여

이배수 사장은 5월 11일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의 바톤을 이어 받아 [공공기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참여했다. 이배수 사장은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구경북!!, 살리자! 지역경제!!" 라고 적은 희망캠페인 릴레이 메시지를 회사 홈페이지 등에 올리면서 의료현장, 질병관리본부, 지역경제 살리기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들에게 작지만 힘이 되기 바라는 뜻에서 이번 릴레이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 참여

CEO 주재 코로나19 비상대응추진반 회의 개최

CEO 주재 코로나19 비상대응추진반 회의가 6월 2일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사는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비상대응추진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예방·확산방지 및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70여 차례의 추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배수 사장은 “회사 예방대응 조치 등 종합상황 점검 및 행동수칙·복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CEO 주재 코로나19 비상대응추진반 회의 개최

김천의료원과 지역상생 의료복지 협약 체결 및 사랑의 헌혈행사 개최

회사는 6월 16일 김천 본사에서 김천의료원과 ‘지역발전과 인권증진을 위한 의료복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랑나눔 헌혈행사’도 함께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사회 내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회사는 협약식에서 ‘덕분에 챌린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념품과 함께 지역 내 의료 소외계층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한 임직원 헌혈증 300매를 전달하였다.

김천의료원과 지역상생 의료복지 협약 체결 및 사랑의 헌혈행사 개최

2020년 상반기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6월 10일 “2020년도 상반기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장인 이배수 사장을 비롯한 각계의 기관장 및 전문가들과 노동조합과 협력업체 위원 등 총 11명이 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회사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하반기 안전기본계획 이행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회사 안전경영 추진활동을 보다 전문화하고 고도화할 방침이다.

2020년 상반기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2020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원석 원장 내방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술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내외 부유식 해상풍력 전문기업·기관 업무 협약 체결

2020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6월 16일 김천 본사에서 ‘2020년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배수 사장을 비롯한 경영관리본부장, 인사노무처장 등 내·외부위원이 참석하였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임직원의 안전과 사회적 거리보장을 위한 회사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현황, 인권 의식 문화 조성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에 대한 결과 보고와 위원들의 강평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사는 앞으로도 인권경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인권존중 의식 향상과 문화 확산 및 인권 침해 예방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원석 원장 내방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박원석 원장이 5월 13일 방문하여 이배수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는 혁신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 및 일체형원자로(SMART) 표준설계 인가 등 양사의 주요 협력분야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사는 원자력분야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사업에 대한 상호협력협약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례 공동협의회를 추진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술지원 업무협약 체결

5월 26일 전남개발공사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개발공사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기술검토 등 상호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공동추진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배수 사장은 “한기가 참여중인 제주 한림해상풍력(100MW) 사업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그 동안 축적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분야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신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국내외 부유식 해상풍력 전문기업·기관 업무 협약 체결

회사는 6월 10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국내외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전문기업·기관 19곳과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변화운 전무를 비롯한 송철호 울산시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민간투자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EPCO E&C News

장세용 구미 시장과 사업개발 방안 협의

경북 구미시 장세용 시장이 5월 19일 방문하여 이배수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사업개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배수 사장은 운영 중인 구미 열병합발전소의 환경설비 개선 필요성과 현재 추진 중인 구미 5산단 내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서는 구미시와 서부발전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구미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적정 신재생 에너지원 선정과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구현을 위해 계획 중인 대기환경관리 세부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회사의 기술 전문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장세용 구미 시장과 사업개발 방안 협의

제2차 에너지산업 정책연구 워크숍 개최

회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차 에너지산업 정책연구 워크숍이 5월 19일 대방연수원(김천시 조마면 소재)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배수 사장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본부장 및 주요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배수 사장은 1차년도(2019년) 연구결과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 인프라를 통해 우리 회사의 역할과 기능확대 방안을 향후 연구과제의 중점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제2차 에너지산업 정책연구 워크숍 개최

동반성장 실천을 위한 에너지혁신성장펀드 참여

회사는 5월 28일 서울 오크우드 호텔에서 산업부, 한수원, 포스코기술투자와 '에너지혁신성장펀드1호'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혁신성장펀드 1호는 에너지 전환정책 이후 원전산업 생태계의 성장역량을 보완하고 사업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안정적 기자재 공급망과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원전 해체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통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동반성장 실천을 위한 에너지혁신성장펀드 참여

김천시 에너지 혁신성장 지원사업 적극 추진

회사는 6월 3일 김천시청에서 김충섭 김천시장, 김정호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이창형 비즈니움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발족식을 개최했다. 사업기간은 총 3년으로 1차년도에는 총 3억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 12개사에 인버터, LED와 같은 '에너지 효율화

김천시 에너지 혁신성장 지원사업 적극 추진

김천 드림스타트에 후원금 전달

국제신용평가사(Moody's)로부터 신용등급 A2 획득

SR과 청렴 감사업무 상호교류 협약 체결

김천구미 KTX 역사 내 회사 영상 광고 시작

장비 설치'를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 3개사에 에너지 스마트 진단 등 '에너지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2가지 트랙으로 추진된다.

김천 드림스타트에 후원금 전달

6월 3일 김천시 드림스타트에 후원금 6천만원을 전달하였다. 김천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배수 사장과 김충섭 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천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만12세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회사는 앞으로도 지역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국제신용평가사(Moody's)로부터 신용등급 A2 획득

회사는 5월 12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로부터 국제신용등급은 'A2'를,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신규 획득하였다. 이번 평가를 통해 회사는 국내(신용등급 AA/안정적)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재무 건정성 및 영업 경쟁력을 인정 받았다. 무디스는 국내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 및 해체 등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회사가 수행하는 공적 역할 및 한전, 발전 자회사와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SR과 청렴 감사업무 상호교류 협약 체결

5월 12일 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과 '청렴·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일순 상임감사와 SR 박노승 상임감사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특화된 청렴시책 운영 노하우 상호 제공과 양사 자체 감사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협약식에서 양사 상임감사는 "반부패 청렴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는 양기관이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청렴문화의 외연을 확장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서 대한민국의 청렴문화를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김천구미 KTX 역사 내 회사 영상 광고 시작

회사는 6월 1일부터 김천구미 KTX 역사 내에 영상 광고를 시작했다. 이번 영상 광고는 지면과 온라인 중심의 기존 광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김천 혁신도시 주민 및 지역사회, 발주처와 회사 방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회사를 적극 홍보하고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E&C

COVID-19 방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자가 보고되었다. 대구 경북지역의 신천지 교인 감염 전파자 증가로 인하여 현재까지 이 지역은 경제적 피해와 후유증을 앓고 있다. 회사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방,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추진반(TF)을 신속히 구성하였다. CEO 주도하에 경영관리본부장을 추진반장으로 하여 종합상황팀, 대응처리팀, 지원·언론대응팀의 3개팀이 꾸려져 매일 상황파악과 대응지침을 결정하였다.

2월 23일에는 코로나19 경보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되었다.
주요 대응 지침 및 결정 사항, 그리고 시행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사옥 출입·이동 제한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지
- ◯ 비상대응 방역 및 소독 강화 및 비상물품 확보(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마스크)
- ◯ 중식 운영시간 변경 등 안전 구내식당 만들기
- ◯ 사무 공간 직원행동 지침 및 예방활동 강화(회의, 행사, 교육, 출장 지양)
- ◯ 재택근무 및 특별유급휴가 시행
- ◯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재택(순환)근무 별도 시행 (약 8주간)
- ◯ 일일 부서별 직원 건강상태 점검(매일 2회)
- ◯ 수도권 이동 자제 및 회사 버스 이용
- ◯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 해외 입국자와 접촉 금지

비상대응추진반(TF)은 2월 19일을 기점으로 매일마다 대책회의를 하였고 70여차례 회사 포탈에 "코로나19 특별게시판"을 개설하였다. 확진자 발생을 대비하여 회사 및 각 본부(단)별 업무지속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수립, 비상 시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감염병 전문학자들은 코로나가 단기에 잡히지 않고 멀고 험한 길을 가야하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산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비상대응추진반은 코로나 물품을 추가로 확보하고, 직원과 가족의 코로나 예방 및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COVID-19

코로나 확산 사태로 직원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익숙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삶의 풍경이 갑작스레 바뀌기 때문이다. 2020년 3월5일 무실삼거리 하나로마트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한 긴 행렬의 줄이 늘어서 있었다. 그때부터 김천혁신도시 내의 상당수 식당들이 임시휴업에 돌입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체감했던 코로나 사태, 특히 직장맘으로서 코로나 방지를 위한 조치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가 가져온 변화, 아이를 돌봐줄 곳을 찾지 못해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가족들을 모두 동원했다는 여직원들의 고통이 많았다. E&C

Writer 이 태 윤 홍보팀 부장

경영관리본부

윤혜순 팀장

나이 오십 줄 넘어서면 살아온 이력과 마음 쓰임새가 얼굴에 새겨져 굳어지는데 그래도 눈은 영혼의 창(窓)이라고, 그이는 밝고 큰 상냥한 눈을 가졌다. 그래서 아재 시대 만화적 상상력으로 '개구리 소년 왕눈이'의 여친 아로미를 몰래 연상하였다. 그 눈빛은 "She is a bright child."에서 'bright'는 성격이 밝고 명랑한 게 아니라 머리에 환한 빛이 잘 들어온다는 뜻의 '영리함', 그런 초롱초롱한 눈매를 가졌다. 그렇다고 '이상한 나라의 폴'이 대마왕에게 붙잡힌 니나를 구출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일은 아니란 걸 곧 깨달았다. 요즘 세대는 그걸 야수의 심장이라 말하는 것 같다. 그녀가 "고소희열증을 느낀다."는 말에 상상의 깃털이 뽑혔다. 절벽 같은 최상위 코스에서 스키 점프를 즐기는 고공 활강하는 모습을 그려 보았다. 바이킹이 주는 스릴 이야기를 꺼낼 때는 더 충격적이었다. 그 이유는 인터뷰어 남자는 남모르는 고소공포증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혜순 팀장을 만날 때는 세간에 화제가 된 회계부정 사건으로 세상이 화끈 달아오른 시기였다. 세상에는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읽고 의미가 와 닿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면 윤 팀장은 그 흐름을 파악하는 전자에 속한다. 원가, 세금, 순현가 같은 재무공식만 보면 뇌주름이 접히는 사람은 "국제회계기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과 외감법(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강화 되고 있지만 회계도 알고 보면 재미있어요."라는 말에 다소 경기를 느낀다. 회계처리, 재무재표, 절사, 공시시스템, 경영성과 등이 국제적 통일성과 표준으로 수렴해 간다는 설명을 듣다보니 감은 없지만 낯선 세계의 기호 하나를 들여다본다. 요즘 윤 팀장은 '귀속연도'가 머릿속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가 보다. 그걸 이해하기 어려워 이만 생략.

보통 사람은 'SAT'라고 하면 미국대학 학습능력 측정시험이라고 넘겨짚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의하는 '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으로 과학, 기술 분야에서 해당기관이 국제표준에 맞게 직원의 이력, 교육관리 체계를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이 기준에 합당한 절차와 체계를 인증 받아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격조건이 주어진다. 윤 팀장은 회사의 SAT 체계 수립과 구축에도 일찍 참여한 적이 있다. 간략히 경력의 회전반경을 요약하면 회계-예산-성과평가-ERP-교육훈련-감사의 궤적이 그려진다. 지식, 경력, 전문성은 대개 투여 시간으로 가늠하는데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였다. "시간이 아까워 이것저것 동시에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 조금씩, 꾸준히 자기학습 했어요. 예를 들면 청소할 때 영어공부를 병행하거나....."

빙글빙글 바쁘게 돌아가는 회전목마가 멈추어 선 것은 2003년경, 갑작스레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던 때이다. 사직서를 낼까도 고심하였다. 그때 윤 팀장에게 전기자 반작용 또는 간섭작용에 따른 회전축 조정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다. 첫 번째 깨달음은 '미워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울림은 자신에게도 일의 소중함 또는 성취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최종 결정은 건강관리도 해야 한다. 땀 빼는 운동인 요가, 수영, 스키, 걷기를 틈만 나면 챙기는 까닭이다.

윤 팀장은 가족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가까우면서도 편하고 그러기에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가족, 또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도 결국 가족이란다. 또 자식은 이미 받은 선물 같다는 묘한 말도 남겼다. -키울 때 기쁨을 이미 너무 많이 받았기에- 더불어 동기가 신랑 되고 신부도 된다는 우연율. 입사 여자동기 4명이 남자동기 4명과 화촉을 밝혔다, 내막은 모르지만, 동기가 인생 파트너가 될 확률이 높다니 젊은 분들은 참고 하시기를. 남편은 퇴사 후 UAE로, 딸은 미국 워싱턴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인턴십 중이다. 해외부녀, 국내모자는 가족재회를 '줌'이란 앱으로 수시 상봉한다.

이제 인생을 중간 결산할 시간이다. 윤 팀장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라는 평가를 먼저 내렸다. 다음은 약간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게 인생이다. 종국에 적정성은 카르페 디엠으로 판단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떨쳐 현재에 충실해야 더 나은 미래에 투자할 수 있다. 매몰원가(sunken cost)는 삶에도 적용되는 원리이니 접수하자.

좋은 책 추천해 달라는 주문에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주저 없이 불러주었다. 오래된 책이지만 다시 읽어보아도 좋다고 한 소절을 암송해 주었다. 그대로 받아 적었다. "비난은 집비둘기 같아서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한 가지 모르던 사실을 윤 팀장에게 배웠다. 회계처리 할 때 왜 발의-검토-지급 담당자를 따로 두는가? 그게 회계부정을 없애는 내부통제의 방식으로 절차를 분할하여 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과정이란 설명을 듣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E&C

원자로설계개발단 개발기획팀

개발기획팀의 업무는 원설단 사업개발 계획수립 및 이행 점검, 지식경영, 지식재산권 관리지원, 학술활동 계획수립, 원설단 홍보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등 원설단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포함한 원설단의 대내외적인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업무들이 망라되어 있다. 한마디로 원설단의 미래를 위한 브레인이자 운전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셈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국내 신규건설이 어려운 때 국내 가동원전 사업개발, 신성장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해외 협력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에서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국내와 해외 시장을 눈썹이 휘날리고 신발의 고무가 타도록 누비고 다녀야하는 개발기획팀, 원설단의 성장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임대헌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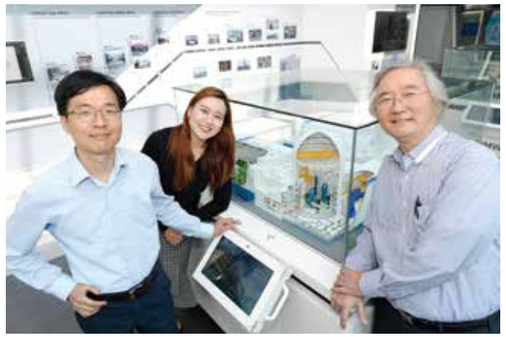
원설단 사업개발 및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캡틴으로 에너지가 뿜뿜 넘쳐나는 매력이 있다. 물에 빠져도 물고기와 이야기를 하기 위한 입만은 가라앉지 않을 수다쟁이지만 갈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것이 걱정이다. 팀장을 믿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도와주는 젊은 팀원들이 가장 큰 복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

양재영 처장

하산을 앞둔 베테랑이다. 1983년에 입사한 그는 유학 과정과 원자력연구소를 거쳐 97년 사업이관으로 다시 한기로 복귀했다. 원자로계통설계팀장, 표준원전설계개선, APR1400개발, 신고리, 신월성1,2호기사업, 사업개발팀장, 홍보실장과 KINGS 교수에 이르기 까지 그의 경력은 화려하다. "포닥 시절 쌓았던 우주원자력 관련 연구 경력을 활용해볼 기회가 없었던 게 아쉽다."는 그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분명 또 다른 변신을 준비하는 것 같다.

김경련 차장

지난 10여 년간 원자력 안전성 평가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개발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개발기획 업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과 유연한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요즘에는 사물을 볼 때나, 책을 읽을 때 순수한 어린 아이처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송하나 대리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는 말을 좋아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퇴근 후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순간 행복을 느끼지만, 아이를 재우고 치맥과 드라마를 즐길 때 더 강력한 찐행복을 느낀다. 복직 후 여러모로 배려해주시는 처장님과 팀장님, 팀원들 덕분에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 개발기획팀에서는 원설단 사업수주현황 관리, 사업개발관련 자료 작성, 사업개발예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개발기획팀의 일원으로 팀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개인역량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수연 사원

원설단 기술개발과제 및 교육·학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종종 미흡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있지만 항상 친절한 목소리로 명쾌한 대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용한 성격이지만 긍정에너지가 넘치는 팀장님과 팀원분들 덕분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성유리 인턴

원설단 개발기획팀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된 인턴이다. 맡은 업무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한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인턴 근무 마지막 날 인턴 생활을 돌아봤을 때 뿌듯한 기억이 많이 남도록 남은 기간도 화이팅! E&C

Writer 정 길 화 미래전략연구소 기술기획팀 차장

작전명 : 라이언 가족 구하기!

미래전략연구소 정길화 차장

3월 31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내와 딸을 맞이하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신속한 귀국결정 하라!

한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참 맹위를 떨쳐도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은 안전하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생활하던 1월, 그러나 2월, 3월이 지나며 캐나다 퀘벡주의 코로나 환자 증가, 의료체계 붕괴, 한국인 피습 사망, 한인마트 테러 등의 뉴스를 접하면서 3월 15일 귀국을 결정하게 되었다. 캐나다 내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입국결정과 동시에 해외이사, 가구 및 자동차 처분 그리고 캐나다 탈출 필수 비행기 티켓 확보 등에 대한 문제를 단기간 해결 해야만 했다.

이사비용 1,500만원, 비행기 1,500만원 지불하라!

물류서비스 파업으로 한국에서 퀘벡 몬트리올로 이사갈 당시 받은 이사비용 7백만원의 두배가 넘는 견적을 받았다. 짐은 절반으로 줄였고 직접 모든 짐을 포장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세배가 넘는 금액일 수도 있었다. 가족사랑은 돈에 비례한다는 우수꽝스러운 나의 신념으로 인해 21일 이사짐 양도를 조건으로 즉시 이사계약을 하였다. 아내는 천오백만원 상당의 이삿짐을 포장하느라 몸살이 났지만 다행이 현지 '상형' 형님과 지인의 도움으로 4일간의 이사짐 포장은 무사히 마무리 되었다.

귀국결정과 동시에 확보한 4월 중순 비행기편은 이사일정에 따라 세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추가 지불하며 변경, 보름 앞당겨 3월 31일로 확정하였다. 50여 시간의 여정인 몬트리올에서 벤쿠버로 다시 벤쿠버에서 인천공항으로의 탈출계획, 10여일 만에 결정과 실행 완료. 작전명 '라이언 가족 구하기!'는 그렇게 시작 되었다.

공항내 감염을 피하라!

캐나다 탈출! 긴박한 18시간 비행, 그러나 장시간의 비행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못했다. 26시간동안 벤쿠버 공항 환승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기 위한 고민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 위험을 돌파하기 위하여 공항 인근 호텔과 공항내 5성급 호텔 예약 대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리던 중 출국 하루 전 공항 내 5성급 호텔이 결재되어 공항호텔에서 환승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천운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라이언 가족 구하라!

새벽 5시 몬트리올을 출발하여 아침에 벤쿠버에 도착한 아내와 딸이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였다. 한국 의료진을 연상하게 하는 의료보호복 착용 승객, 비닐로 온몸을 두른 승객, 가족단위로 공항 카트를 끌고 호텔을 가기 위하여 택시 정류장으로 향하는 행렬 등은 영화에서나 본 듯한 장면이였다. 편안하게 공항호텔에서 24시간을 보낸 뒤 의료보호복과 비닐을 착용한 몇몇 중국승객들과 다시 섞여 의무격리기간 하루 전 3월 31일, 무사히 인천에 도착하였다.

과거 몬트리올로 향한 가족 회상!

5년 여전 갑작스러운 암진단으로 인한 충격, 막내동생 사망, 김천에서 시작된 주말부부 생활. 같은 시기에 겹친 여러 상황에 아마도 잠시라도 한국을 멀리 떠나고 싶었을까? 자녀유학을 고려하며 평소 생각하던 북미 불어권 도시 몬트리올로 아내,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인천공항을 떠났던 때를 떠올렸다. 몬트리올에 도착해서

한동안 외로움과 적적함에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당시 중고등학생인 아들과 딸을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며 가족을 돌본 아내, 고등학교 편입 하자마자 영어, 불어 등의 필수 졸업학점을 취득하여 대학입시 스트레스를 극복한 아들, 주말 용돈벌이 알바와 중고등학교 학업을 무사히 마친 딸에게 고마운 마음을 보낸다.

끝나지 않은 김천 정착과 불확실한 미래!

3월 31일 입국 후 선택자가격리와 함께 김천생활은 시작되었다. 신검을 위해 2월 한국 입국 후 캐나다 입국제한으로 출국하지 못한 아들, 김천생활 그리 나쁘지 않다며 적응해가는 두 모녀. 큰 위기를 잠시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김천에 다시 모였다. 해외이삿짐 도착 전 캠핑 같았던 한달 보름은 5년전 몬트리올에서 해외이사 도착 전 한 방에 이불을 펴놓고 밤새 매일 이런저런 수다와 함께 학교생활의 에피소드를 늘어 놓던 때를 기억하기에 충분했다. 한 지붕에 모인 가족들 그 자체만으로 고마운 일이다.

불확실한 미래!

잠시 코로나바이러스를 피해 김천에 모였지만, 아들 군대입대, 캐나다대학 입학허가서를 받은 딸, 서울과 몬트리올에서 피아노 개인레슨 선생님으로 인기가 많았던 아내가 일상의 쓸쓸함에 김천생활을 잘 적응할까 하는 걱정, 내 몸속의 또 다른 암진단 우려로 몇 개월째 대학병원에서 검사 중인 나, 우리 일상은 아직 불확실성에 있다. 그러나 현재 몬트리올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200여 한인가정이 해외이사를 대기 중인 상황에서 벗어나 청정지역 이곳 김천생활은 라이언 가족들에게는 요새일 것이다. 정길화 가족 구하기! 다시 한번 환영한다. 나의 가족! E&C

작은 중세 유럽 도시, 체스키크롬로프

박재혁 원)전기계측기술실 부장 / 삼성 갤럭시 노트7

체코 남부에 위치한 작은 중세 유럽 도시인 체스키크롬로프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며,
프라하 성에 이어 체코에서 두번째로 큰 성이 있다. 프라하에서 차로 2~3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다양한 양식의 중세 건물로 가득하다. 동화같은 풍경과 더불어 고풍스런 거리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알차게 유럽을 즐길 수 있다.

예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5년 전 독일 지인으로부터 그쪽 회사는 퇴근시간에
사무실이 전체 소등되고 수위가 건물을 돌면서
직원을 퇴근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승인없이 특근하면 근무규정위반이고, 불가피한
직원은 특근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 당시 참 특이한 제도라고 생각했었다.
한국도 주6일제에서(토요일 오전 근무) 주5일제
근무제로 바뀌었고 요즘 일부에서는 셧다운(PC
종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리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도
여행, 휴식, 여가가 중시되는 사회로 변모 중이다.

밤에 멀리서 사옥을 바라보면 층층이 환하게 불 켜진
사옥이 보인다. 어떤 불가피성으로 사무실에 남아
일하는 직원들. 밀린 일, 시급한 일, 마감에 쫓기는
일이지 않을까 짐작하지만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다.
스스로의 책임감으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키보드를 딸깍 거리는 직원들 모습을 촬영하였다.
그 중 안경을 이마 위로 걸치고 한 손에는 펜을 잡고
도면을 응시하는 직원이 뷰파인더에 잡혔다.
그는 머릿속으로 지금 무얼 분석, 고민, 결정하고
있을까? 후경을 잘라내고 진지한 채 미동도 없는
피사체를 측면(profile)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이 밤을 외로이 지키는 등불, 이 사람은 누구인가?

사진 속 주인공을 아시는 분은 rainbow@kepco-enc.com으로 7월 30일까지 메일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다섯분께 커피 쿠폰(일만원)을 제공합니다.

Project of KEPCO E&C
Writer 이 명 훈 신기술사업그룹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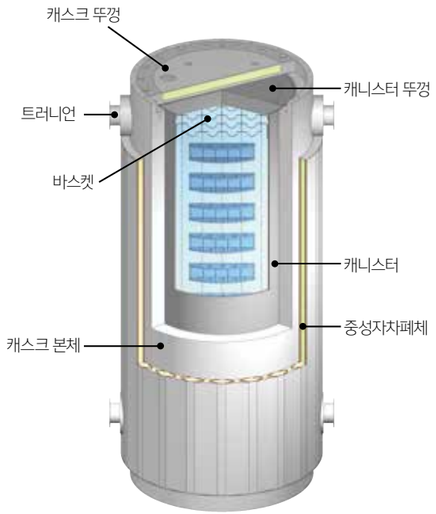
OASIS
(Optimum And Safe Interim Storage System)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을 위한 캐스크 기술개발

OASIS CASK

OASIS-HC 모델
OASIS-32D 모델
OASIS-STO 모델

OASIS 캐스크는 우리회사가 45년간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스템이다. OASIS(Optimum And Safe Interim Storage System) 캐스크는 원자력발전소에서 건식저장시설까지 사용후핵연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한다.



OASIS-32D 구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건물 혹은 보조건물에 위치한 사용후연료저장조에 습식으로 저장하여 보관한다. 여기서 습식이란 물을 냉각재로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을 냉각시키며 방사선 차폐를 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재장전기간 동안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붕괴열과 고방사선으로 인해 보통 5년 이상 사용후연료저장조에 습식으로 저장한다. 국내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는 건식저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모두 사용후연료저장조에 습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연료저장조는 10년에서 20년 정도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된다. 그러므로, 사용후연료저장조에 습식으로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는 저장조의 저장용량이 초과되면 발전소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 운영이 종료된 경우에도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용후연료저장조에 습식으로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식저장방식은 공기를 이용한 자연대류방식을 사용하며, 방사선 차폐를 위해서는 금속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건식저장방식은 저장용량의 증대 및 운영 면에서 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해외 원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의 사례에 있어서도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습식저장시설을 확대하는 것보다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우리회사는 사용후연료저장조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하기 위해 OASIS 캐스크를 개발하였다. OASIS 캐스크는 용도에 따라 운반과 저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겸용캐스크(OASIS-32D), 저장만을 위한 저장캐스크(OASIS-STO)와 이송[취급]을 위한 이송[취급]캐스크(OASIS-HC)의 3가지 캐스크 모델로 구성된다.
운반과 저장을 겸한 겸용캐스크(OASIS-32D)는 사용후핵연료의 운반 및 저장 시 구조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금속 용기로 설계하였으며, 캐스크 운반 시 충격완충재를 사용하여 낙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캐니스터 밀봉을 유지하여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한다. 저장캐스크(OASIS-STO)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전용 캐스크로써, 경제성을 고려하여 캐스크 본체를 금속과 고밀도 콘크리트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송캐스크(OASIS-HC)는 사용후연료저장조에서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로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하거나, 건식저장시설에서 저장캐스크 내부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송하는데 사용한다.

OASIS 캐스크의 구조는 바스켓, 중성자흡수재, 중성자차폐재, 캐니스터와 캐스크 본체로 구성되어 있다. 바스켓은 캐니스터 내부에 위치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지지하고 고정하며, 중성자흡수재를 바스켓에 부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미임계를 유지한다. 중성자차폐재는 캐스크 외부로의 중성자 차폐를 위해 캐스크 본체 바깥 쪽에 설치된다. 캐스크 본체는 감마선 차폐, 구조적 건전성 및 냉각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한다. 캐니스터는 외부 형상 및 크기가 동일하여 여러 캐스크 모델에 호환가능하며, 저장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특성에 따른 다양한 캐니스터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회사는 OASIS 캐스크의 사업화를 위하여 두산중공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국내 건식저장 캐스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캐스크 기술은 사용후연료저장조의 포화상태 해소와 향후 예상되는 원전해체시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사용후핵연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책임감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45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원자력산업의 신뢰 구축을 위해 기술개발을 통한 사회공헌에 힘쓸 것이다. E&C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

자료 제공 : 지앤씨 미디어

르네 마그리트는 20세기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이자 초현실주의의 거장으로 손꼽힌다.

20대 초반에 벨기에 왕립미술학교에 입학하여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기 시작한 마그리트는 우연히 카탈로그에 실린 조르조 데 키리코의 작품 〈사랑의 노래〉를 보게 되었다. 이 작품에 큰 충격을 받은 마그리트는 이후 초현실주의 화가의 길을 걷게 된다.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와 호안 미로, 시인 폴 엘뤼아르 등과 교류하였으나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꿈의 세계, 무의식을 중시한 프랑스 초현실주의자들과는 다른 시각 예술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해 냈다.

오늘날까지도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은 현대 대중문화의 '자양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작품은 유명 뮤지션의 앨범 재킷에, 또한 영화 〈매트릭스〉와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에 영감을 줬다.

그 외에도 건축, 광고 등 대중문화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으며 2018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그의 작품 〈쾌감의 원칙〉(1937)이 한화 약 329억 원에 낙찰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연인〉(1928), 〈이미지의 배반〉(1929), 〈빛의 제국〉(1950), 〈골콩드〉(1953), 〈사람의 아들〉(1964) 등이 있다.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9월 13일(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 센트럴 뮤지엄"에서 가상과 현실 사이를 오고 가는 환상적인 미디어아트를 통해 체험형 전시로 만날수 있다. E&C

골콩드,
1953, 캔버스에 유채

사람의 아들, 1964, 캔버스에 유채, 116x89cm

연인, 1928, 캔버스에 유채, 54x73.4cm

René Magritte
(1898-1967)

이미지의 배반, 1929, 캔버스에 유채

잘못된 거울, 1935, 캔버스에 유채, 19x27cm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 전시장 전경

Writer **류 도 환** 홍보팀 사원

한잔으로 보는 나의 **한잔 라이프**

누구나 으레 그러하듯 대학 새내기 시절
처음 맛본 소주에선, 역한 알코올향과 그 특유의
쓴맛밖에 느끼지 못했다. 그 당시 나는 앞에 앉은
동기가 어색하게 채워준 잔을 선배가
'짠'하자고 하니 마지못해 한잔 입에 털어 넣는
영락없는 '酒린이'였다. 음식도 먹는 법을 알면
그 맛을 알게 된다고 했던가. 술에는 인생의 맛이
니 이런저런 양념을 섞는 모양이지만, 아직 그런
깊은 숙성된 맛을 느낄 짬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고로 주당이라고는 자칭하진 못하지만
맛난 음식을 보면 술 한잔 생각나고,
비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를 한잔 기울이는 맛
정도는 알아 가는 듯하다.

2010년 기네스 잔

처음 술을 마셨던 대학 새내기 시절에서 10여년이 지났다. 한창 술을 많이 마시는 20대 시절, 운이 좋아서인지(?) 국내의 주류문화가 일변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맥주와 소주 일변도였던 국내 주류시장에서 와인이 대중화되고 다양한 해외의 맥주들이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리큐르 시장도 급성장 하였다. 그 이유가 어찌 되었던, 새로운 맥주를 자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였다. 나름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펍(Pub)에서 즐기는 다양한 맥주의 맛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왕 영국에 갔으니 기네스 마셨다 정도의 피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유학 당시 옥스포드 보드빌리언 도서관 앞에 위치한 'White Horse'라는 Pub에 방문한 적이 있다. 입구를 들어서자 왠지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술집의 분위기. 미적지근한 에일을 한잔 들이켜야 하는 분위기였다. Bar에 줄지어 있는 맥주 탭들 사이에 문외한인 내가 어느 것으로 할지 망설이자, 주문대 옆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고민이 뭐가 필요하냐는 식으로 'Wychwood Hobgoblin! a pint!'라고 완고하면서도 장난기 서린 눈빛으로 대신 외쳤다. 반강제적으로 한손에 거품이 넘쳐 흘러내리는 에일 맥주를 손에 들게 되었지만, 귀국한 이후에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이해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야 그때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면서, 황금같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속칭 맥주광이 되었지만, 내가 맥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우연찮게 방문한 한

기네스 잔 모음

트라피스트 글라스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300ml 기네스 맥주잔 증정 행사가 게시판을 달구고 있었다. 500ml잔은 어디서 구하냐라는 반쯤 성토에 가까운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당시 나는 귀국하면서 기념품 상점에서 '기네스 2010년 한정판 파인트 잔'을 구매 했었다. 한정판은 한정판이라 쓰고 '이건 무조건 사야돼'라고 읽는다고 했던가. 아무 생각없이 구입한 기네스 잔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게시판의 분위기를 읽고, '기네스잔 구했는데, 이거 좋은건가요?'라고 기만에 가까운 글을 올렸다.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한정판이기도 했거니와 당시는 500ml가 1파인트였지만, 잔 전면에는 전통적인 'Imperial Pint' 기준인 568ml가 각인되어 있어 그 인상이 더 강력했다. 처음 올린 글이 추천수에 힘입어 베스트 게시글로 등록되었다.

파울라너 옥토페스트 기념잔과 병뚜껑

얼떨결에 유명인사가 되고 한동안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였다. 다양한 맥주가 수입되기 시작한 터라 이용자들과 교류를 하며 여러 맥주들을 맛보았다. 그리고 자연스레 맥주잔으로 관심이 갔다. 맥주잔도 유심히 보면 맥주의 특성에 따라 그 맛을 더욱 잘 느껴지게 혹은 그 맥주의 역사와 분위기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하고 있다. 한 모금 머금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도수로 알코올의 강렬함과 꽃향기와 과일향이 느껴지는 '벨지안 스트롱 에일'은 그 향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해 얇고 굴곡진 고블릿 잔을 이용한다. 맥주의 명품이라 불리는 '트라피스트 에일'은 수도원에서 제조되는 특성상 전용잔인 '트라피스트 글라스'는 마치 성배와 같은 디자인이다. 지금 내가 가진 컬렉션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물건이 바로 이 '트라피스트 글라스'이다. 유리잔이라는 특성상 해외구매도 쉽지 않지만, 언젠가는 12종을 모두 모을 날을 기대해본다.

아사히 도자기잔

한때는 맥주를 마실 땐 항상 그 맥주에 맞는 맥주잔에 따라 마셨지만, 이제는 머그잔이나 커피잔을 주로 이용한다. 자취생활에서 오는 설거지의 귀찮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맥주를 차 한잔 하듯 주말에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본차이나 커피잔으로 홀짝거리는 것도 나름 운치있다. 산해진미를 두고도 라면이 맛있듯이, 개인적 취향의 존중시대에 나름 나의 맥주취향을 찾은 것 같다. E&C

Writer **이 태 윤** 홍보팀 부장

마라톤의 작은 거인

경비실 이종현

“마라톤은 다리가 아니라 팔로 해요.” 상식의 뒤집기, 생각의 의표 찌르기 같은 말이었다. 별빛을 보려면 빛이 없는 캄캄한 곳을 찾고, 멀리 보려면 높은 산을 올라야 하는 것처럼 ‘마라톤 잘 뛰는 경비원 이종현’ 만나러 가는 길은 도사님 뵙는 과정이었다. 훌쭉한 큰 키에 다부진 근육질을 상상했는데 의외로 작은 체구의 여린 소년이 나타났다.

이종현 경비원은 김천 사옥 탄생 시점과 함께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으니 둘은 경력상 동갑이다. 그의 고향은 남김천 IC 근방의 부상리이다. 김천혁신도시 지정 이전 여기 농남중학교를 다녔으니(지역개발과 함께 폐교) 이곳 옛 풍경을 기억하는 순수 토박이다. “포도밭과 참외밭 그리고 작은 마을 밖에 없었으니 허허벌판이었지요.” 그 모습이 몽땅 사라졌지만 고향을 떠나지 않고 남았다. 본래 대구 쪽에서 치기공 공부를 하였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직업을 바꾸었다.

경비근무는 어떻게 하시는지 물었더니 주간-야간-비번의 3조2교대 체계로 순번이 돌아간다고 한다. 여기에는 토·일과 달력 빨간 날의 구분이 없다는 부연이 따라 붙었다. 안내 데스크 여직원 2명 포함, 주야간 구성으로 팀이 꾸려져 대략 25명 내외의 직원이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이 세계 나름 정교한 규칙이 있다. 회사 안팎으로 27군데의 감시 및 확인 체크 포인트가 설정되어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돌아야 한다. 건물 전체 보안관리와 점검, 안전확인, 안전통제도 책임지고 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업무가 바빠진 듯, 최근에 긴급으로 열화상 카메라 한 대를 추가로 임대하였다.

근무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지 질문하였다. 간혹 드물게 몸빼 입은 아주머니, 햇볕에 그을린 아저씨들이 회사 간판을 보고 들어와 “여~가 전기요금 내는 곳 아~인~교?” 하고 묻는다. 도회사람이 곶감에 분(粉) 나는 걸 보고 그게 밀가루 묻혔다거나 곰팡이 피었다거나 운운 할 수도 있는 법이니 그 반대도 가능한 일이다. 근무 서다보면 재미난 에피소드도 일어난다. 일 년에 서너 번씩 만취하여 야간에 들어와 횡설수설 저 높은 곳의 철학을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겠다.

이종현 씨는 2019년 9월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공주백제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39분으로 일등 하였다. 또 다른 기록으로 서울마라톤(2시간 32분), 경주마라톤(2시간 34분) 기록을 합산하여 연령별 20대에서 ‘올해의 선수상’도 받았다. 일명 30분대 선수라고 말할 수 있다. 혹시 상금 사냥꾼(bounty hunter)아닌가 물었더니, “2018년 전기마라톤 대회에서 2등으로 자전거 경품을 땄어요. 마라톤 대회 부상을 챙겨가니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라톤에 빠진 어떤 필연인지 우연인지 하는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인생을 회고하면 그게 필연을 가장한 우연인지, 우연을 빙자한 필연인지 늘 아리송해지는 법이다. “동네 조기축구회 나갔는데 아는 친구가 ‘야아, 니 체력도 좋다, 마라톤 하면 잘하겠다. 함 해봐라’” 그 말에 막연히 해 보았다. 그게 도화선인지 촉매인지 점점 마라톤 세계에 빨려들게 되었다.
“마라톤은 팔로 뛰어라.”라는 수수께끼 풀 시간이다. 자신은 타고난 강짜 심폐기능 소유자는 아니지만 매일 연습한 누적값이라 한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km를 40분씩 달린다. 실제로 마라토너는 ‘팔치기’만 천 번 연습하여도 실력이 오른다. 시연을 요청했더니 팔꿈치를 허리에 띄우면서 가볍게 스윙을 넣어 살랑살랑 뛰는 포즈를 보여주었다. 팔도 노 젓기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했다.

대회에 나가면 일생일대의 숙적도 보인다. 서울 사는 라이벌은 케냐까지 날아가 마라톤 진수를 터득하려 작정했는데 코로나로 발이 묶인 신세이다. 그런 경쟁자 얼굴이 나타나면 긴장하는 것일까? 마라톤을 오래 하면 무릎과 연골이 나가거나 고장 난다는 세간 말은 그렇지 않다 설명한다. 황영조나 이봉주 같은 스타들이 떠나고 난 후 인기가 시들해져 아쉽다고.
여친은 언제 만들 심산인가 물었다. “그게 마라톤에는 할배, 할매만 나오는 것이라서……”
웃으면서 뒷말을 흐린다. 한국인은 대체로 무뚝뚝한 얼굴인데 출퇴근 직원들이 좀 더 웃는 얼굴, 밝은 미소를 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 60세가 될 때까지 뛰겠다! 삶이 마라톤으로 채워진 싱싱한 청년이다. E&C

Writer **이 태 윤** 홍보팀 부장

멀홀랜드 드라이브
: BBC 100대 영화 선정 1위

우리 인생이란 : 나는 뷔페에 가서 배가 터질 정도로 음식을 먹고 난 후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배가 고파 허기를 채우려 꿈의 음식을 또 허겁지겁 먹었다. 천애절벽의 끝에 간신히 매달려 옆 소로에 닿기 위해 건너뛰다 추락,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깨어나 보니 나는 침대 위에 누워 1cm 아래로도 떨어지지 않았다.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2016년 영국 BBC가 21세기 최근 16년간 영화 작품 중 최고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웹에서는 BBC 선정 100대 영화 중 1위 작품으로 나온다. 2001년 칸 영화제 감독상 작품이다.

장주의 호접몽은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르겠다는 실토이다. 사람은 깨어 있을 때, 꿈 꿀 때, 나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숙면, 이 3단계 의식을 반복한다. 멀홀랜드 드라이브 영화에서는 무엇이 현실이고 꿈인지 애써 구별하지 마라. 뒤죽박죽 혼재되어 있으니. 또 둘을 분별해 보았자 오고가는 전이 상태만 있을 뿐 둘 다 '꿈속의 꿈'이다.

샌타 모니카로 향하는 멀홀랜드 드라이브에서 보이는 할리우드가 배경이다. 자동차 사고에서 간신히 살아나 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자 리타, 할리우드 스타를 꿈꾸는 여자 베티, 재능 있는 젊은 영화감독 아담이 주요인물이다. 두 여인 리타와 베티는 다른 설정에서 카밀라와 다이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어느 쪽을 현실이고 꿈으로 보든지 영화는 교차해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가 풀려난다.

영화제작을 둘러싼 걸 보여주는 영화이니 또 '영화 속의 영화'가 되겠다. 이걸 철학 동네에선 '메타'라는 수식어를 붙이니 메타영화라고도 볼 수 있다. 할리우드이니 영화산업에 얽힌 개인의 야망, 진실, 기만, 욕망, 좌절, 성공과 실패라는 키워드가 튀어나온다.

이게 현실인지 초/비현실인지, 낮인지 밤인지 서로 물고 물리지만 영화 대사에서 '이 모든 것은 환상(곡두)입니다'고 말해 준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여인은 스페인어로 부르는 'Crying' 연기를 보고 눈물에 흠뻑 젖는다. 인간은 자신이 환상으로 지어낸 호랑이에게 물려 죽기도 하는 법이다. 촉망받는 영화감독도 누군가의 지시를 듣지 않자 인생이 파탄난다. 은밀히 속삭이는 목소리 " 저 여자를 배우로 캐스팅 해. 그럼 살려줄 게" 알고 보니 그 역시도 꼭두각시 인생을 산다.

두루두루 데이빗 린치 영화을 볼 때 마다 드는 생각. 이 사람이 혹시 영화 보다는 미술가나 연극연출자 출신 아닐까? 상징적 수법, 미장센, 플롯 전개, 설정이 일반 영화와는 다르다. 꼭 화폭이나 연극무대를 보는 듯하다. 대체로 린치의 영화는 섬찍한 오싹함이 묘한 아름다움을 동반하면서 펼쳐진다. 가슴 저미는 통증과 눈물로 본다는 사람도, 사랑도 알고 나면 광기의 다른 이름이라 느끼는 이도 있다. 감독의 이름 그대로, 인간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가격(린치)하는 선수이다. 그래서 괴상한 미스터리 장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미국 뽕짝이 린치 감독의 영화음악에 늘 빠지지 않는데, 평소 듣던 팝송이 영화에서는 기묘한 무드로 탈바꿈한다. 흔한 낭만적 느낌이 분열적 착란의 다른 느낌과 분위기를 자아내며 화면에 흐른다. 이게 린치 영화의 묘미이다. 멀홀랜드 드라이브에는 3곡의 올드 팝송이 삽입되었다.

- Roy Orbison "Crying"
- Linda Scott "I've told every little star"
- Connie Stevens "Sixteen reasons"

영화를 보고 난 충격 이후, 이 노래 장면 파트만 반복하여 돌려보는 사람도 많다. 린다 스콧이 부른 노래는 한국 TV CM에서도 자주 나온다. 'Sixteen Reasons' 노래를 수 십 번 재생해 본 적이 있었다. 60~70년대의 복고풍 머리스타일, 화장, 옷, 옛날 여가수의 풍모가 완전히 재연되어 아재가 빠져드는 옛 추억의 취향에 딱 맞다. 바비 달린(Bobby Darin)과 파리 자매(Paris Sisters)들이 활동하던 풋풋한 시절을 기억하는 분이면 좋아하리라.

이 영화에 관한 수 만 가지 해석이 따른다. 이에 린치 감독은 오직 침묵으로 일관했다. 어떤 복잡 난해함에 직면할 때 이걸 반드시 이해하려면 강박증에 시달린다. 느낌만으로 전율하고 공명을 일으킨 사람이라면 잊지 못하는 영화이다.

비(非) 할리우드식 영화이니 재미로 보겠다는 분에게는 추천하기 어렵다. 영화는 진중하고 심장한 편이다. 미학, 정신분석, 상징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감칠맛 날 정도로 달콤하고 아린 영화이다. 이 세상은 현실이건 꿈이든 모두 환상이다. 이 인생은 한 편의 영화와 같다. 그런데 사랑을 잃은 베티의 마지막 선택은? E&C

Writer/ Photo 강 우 성 혁신성장실 대리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는 페루의 리마, 마추픽추

와카치나의 버기투어

38시간, 인천에서 출발하여 미국 달라스 또는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하여 페루의 수도 리마에 도착하는 시간이다. 인천에서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까지 이동하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미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멀다'인데 실제로 남미 여행 후에 멀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다. 나는 최종 목적지인 마추픽추를 가기 전 페루의 관문이자 수도인 리마를 방문했다. 남미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치는 도시로서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담고 있는 도시이다. 스페인의 식민지 시절부터 각광을 받았던 곳이며 현재 약 800만명이 살고 있는 남미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이다.

마라플로레스(신시가지)

리마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뉘는데 리마에서 하루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던 관계로 그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인 마라플로레스(신시가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마라플로레스의 뜻은 '꽃을 보라'라는 뜻으로 가족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의 경관은 해변과 절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해변에서는 서핑을 즐기고 절벽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즐긴다. 또한 '라르꼬마르'라는 해안 절벽에 위치한 대형 쇼핑센터에서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수많은 명품 상점들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

와카치나마을

와카치나마을의 야경

쿠스코 전경

쿠스코의 거리

쿠스코의 야경

남미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막들이 있는데 그 중 고운 모래 사막을 보고자 한다면 와카치나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리마에서 버스를 타고 약 4시간 정도 이동하면 이카(Ica)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택시나 뚝뚝이를 타고 약 10분 정도 더 가면 와카치나로 들어갈 수 있다. 그 곳에서 오아시스 마을을 만나볼 수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으며 그 주변에 호텔 및 식당들이 즐비해 있다. 와카치나 마을은 생각보다 작아서 20~30분이면 다 돌 수 있을 만큼 작다. 와카치나의 하이라이트는 버기투어다. 와카치나 내에서 호객하는 여행사들을 통하여 2시간짜리 버기투어를 예약할 수 있는데 오후쯤에 맞추어서 버기투어를 하면 해무리를 볼 수 있으므로 오후 늦게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버기투어 도중에 샌드보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 깊은 사막 계곡에서 보드를 타면 스노보딩과는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와카치나의 밤은 더욱 더 특별한데 그 이유는 사막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페루의 수도인 리마를 보았다면 옛 잉카제국의 수도이자 페루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마추픽추를 보기 위해서 쿠스코로 이동했다. 리마에서 쿠스코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로 비행기 또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행기는 약 1시간 반 소요되며 버스로는 약 22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쿠스코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쿠스코는 리마보다 해발고도가 약 3400미터가 더 높다. 고도가 높을수록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내려서 몇 발자국만 가면 호흡 곤란 및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다. 관광객들이 이러한 현상을 많이 겪기 때문에 짐 찾는 곳 주변에는 코카잎을 파는 상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수천 년 전부터 잉카 사람들은 고산지대의 생활로 인해 고산병

또는 두통이 오면 코카잎을 먹거나 차로 이용하여 병을 완화했다고 한다. 또한 자양강장제 역할을 하기에 산을 많이 올라야 하는 잉카인들에게는 필수품으로, 여담으로 코카잎을 먹으면 쉬지 않고 한 번에 산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코카잎은 잎 자체를 껌 씹듯이 씹거나 차와 같이 만들어 마시기도 한다. 현대에는 코카잎을 사탕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많이 판매하고 있다. 코카잎에는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중독성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코카잎에서 마약 성분을 따로 추출하여 코카인이라는 마약을 만들 수 있으므로 코카잎을 우리나라에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코카잎으로 만든 사탕은 반입할 수 있으니 방문한다면 코카잎 사탕을 구매해서 오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살리네라스

쿠스코는 광장을 중심으로 많은 상점과 주거지역들이 분포해 있으며 특히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 쿠스코에서 마추픽추로 가는 방법은 트레킹, 당일치기, 여행사 이용 등 방법이 다양하다. 등산이나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버스와 도보를 이용한 트레킹 코스를 추천하며, 시간은 없지만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기차만을 이용하여 당일로 갔다 올 수가 있다. 또한 쿠스코 광장 주변에는 여러 여행사가 많은데 한국어도 가능하므로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없다. 나는 마추픽추 가는 중간에 다양한 지역들을 보기 위하여 '성스러운 계곡' 코스가 포함한 1박 2일 여정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성스러운 계곡 투어는 친체로, 모라이, 살리네라스 등 여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살리네라스에 도착하면 고대 잉카 문명의 계단식 염전을 볼 수가 있다. 이 지역은 지하수가 짠 소금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대 잉카인들이 염전을 만들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해발 3,000미터에 위치한 산악 염전으로 아직도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현지 가이드 말에 의하면 살리네라스 계단식 염전의 소유주는 한 가족이 운영하고 있으며 아무에게나 염전에 지분 참여를 허락하지 않고 만약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소유주 가족 일원과 결혼 해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코카잎

많은 관광객들이 마추픽추를 가기 전 꼭 방문하는 아구아스 깔리엔떼스 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마추픽추의 베이스캠프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 도착하려면 페루 레일 또는 걸어서 갈 수 있는데, 편하게 기차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차를 타고 가는 풍경이 엄청나게 매력적인데 유리창에서 얼굴을 떼지 못할 정도로 자연 풍경에 압도된다. 마을에 도착하면 다양한 식당들과 노상 점포들을 볼 수 있으며 숙박을 하면서 여행자들의 쉼터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밤이 되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맥주 한잔하며 떠들썩해지는 분위기를 접할 수 있다. 이곳에서 1박을 하고 나면 다음 날 아침부터 마추픽추 왕복행 버스를 타기 위하여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아구아스 깔리엔떼스 마을

마추픽추

마추픽추

마추픽추

비밀의 도시, 태양의 도시, 공중의 도시 등 마추픽추를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수식어들이다. 이처럼 마추픽추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수수께끼의 도시로 남아 있다. 해발 2,400미터에 위치한 마추픽추에는 약 1만 명의 잉카인들이 거주했으며, 20톤이나 되는 돌을 바위산에서 잘라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산 위로 날라서 집을 지었다. 1911년 처음 발견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잃어버린 도시, 오직 공중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공중도시라고 불렸다. 막상 아침 일찍 마추픽추에 도착하면 안개로 인해 산 주변이나 도시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몇 시간 후에는 서서히 안개가 걷히면서 햇살이 도시 전체를 비추는 장면을 보면 감탄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다. 고대 잉카인들의 지혜로 건축한 도시를 보며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잉카인들이 돌로 지은 다양한 건축물들을 마주칠 수 있으며, 당시에 하루의 시간을 측정하는 돌판으로 만든 해시계, 달력 등 잉카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1년에 40만 명이 마추픽추 도시를 방문하는 관계로 지대가 1년에 1센티미터씩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페루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광객을 줄이거나 접근 금지 구역을 만든다고 한다.

페루를 여행하기 가장 좋은 날씨는 11월부터 4월까지이며 고산지대로 인해 일교차가 많이 나므로 긴 소매 옷을 챙기는 것이 좋다. 게다가 고산병 약은 현지 약을 사서 먹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며 만약 미리 준비하고자 한다면 아스피린을 국내에서 구매해서 가도 된다. E&C

Writer **이 태 윤** 홍보팀 부장

대전 신성동
숯골원 냉면

맛있는 녀석들이 다녀간 집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시원한 육수와 면발이 어우러진 냉면 한 그릇은 체증을 내려준다. 평안도식 냉면의 원형을 잘 보존한 숯골원은 금병산 자락 끝 수운교(水雲敎) 본부가 자리잡고 육군시설이 밀집하여 자운대라 부르는 근처의 신선동에 위치해 있다.

남도에서 '닝닝한', 북도에서 '슴슴한' 형용어구는 입안이 조금 심심할 정도로 간이 진하지 않고 싱겁다는 묘사이다. 처음 숯골 냉면을 먹는 사람은 이게 어떤 맛으로 먹는 냉면일까 의아한 분도 있다. 숯골 냉면은 고명으로 돼지고기 편육이 아닌 찢어낸 닭고기, 삶은 계란 반 토막 대신 노란 계란 지단이 나온다. 면에는 약간의 메밀 향 같은 특유한 냄새가 스며있다. 곁들여지는 반찬으로 반쯤 삭힌 묵은 김치가 나와 냉면과 묘한 궁합을 이룬다. 음식의 비주얼은 심플한 미니멀리즘이다. '곰탕집의 불안'이란 말은, 곰탕 이외에 나오는 반찬 가지 수가 많아질수록 왠지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인데, 숯골원 냉면에는 그런 걱정은 없다.

경상도 말로 '가가 가다'와 '거가 거다'라는 말에서 후자를 통역하면 '그곳이 그곳이다'는 의미로, 따져 보았자 도긴 개긴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냉면이 요리로서 이런 평가를 자주 받는다. 전국의 이름난 냉면집에서 먹어보았자 그 명성에 비해 맛이 고만고만하다는 불만. 더욱이 냉면은 고기를 구워 먹고 난 뒤 '물냉 또는 비냉'이란 후식으로 전락했다고 느끼는 분도 있다. 요즘 즉석식품 만두, 육개장, 짜장면은 요리집을 능가했다는 말도 나오는 판에 마트에서도 다채로운 즉석 냉면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예전 시장터에서 냉면은 반죽하고 삶고 헹구는 일련의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노천음식에 가까웠다. 냉면기계에 반죽을 넣고 쇠 지렛대로 눌러 쥐어짜면 '찌익' 소리를 내며 면 가닥이 펄펄 끓는 솥 안으로 떨어지고 부글부글 끓는 화탕지옥에서 사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품 연화장을 펼치면서 춤을 추었다. 그걸 찬물에 헹구면서 사리는 구원의 세례를 받았다.

차츰 면을 외부에서 구매하다 보니 어디를 가나 면발이 비슷해졌고, 대체로 면발은 가늘고 질기고 투명해졌다. 그러다 보니 면 가닥을 토막 내어주는 가위 박사를 초대하는 일도 생겨났다. 면계에서 "면발이 가늘어지고 질겨졌다."는 소식은 대단한 뉴스이다. 우동, 라면, 국수는 면발의 굵기와 차진 정도, 재료나 익힘 정도에 따라 면신이 달리 강림하기 때문이다. 콩국수는 가는 국수 면과 넓은 칼국수 면 어떤 쪽이 낫다고 친구와 심하게 다툰 적도 있었다. 면은 이토록 섬세한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린다.

숯골 냉면을 맛보고 야릇하다 느끼는 사람을 위해 약간의 설명을 하자면. 요리 미학의 일계명이 TT 과정 이다. 맛 길들이기(Taste Taming)의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참맛을 알게 된다. 김치, 치즈, 취두부, 젓갈, 홍어는 본래 큼큼하고 썩은 맛이면서 또 공격적이다. 대개 순한 맛에서 강한 맛 길들이기로 진행하는 반면, 역으로 강한 맛에 중독된 후 약한 맛으로 역진하기가 어렵다. 순하고 여린 맛, 담백한 맛의 반전이 더 힘들다. 그래서 숯골 냉면의 심심하고 허전한 맛을 음미하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슴슴한 숯골 냉면은 자극을 추구하지 않기에 먹고 나면 속이 편하고 개운하다. 그러니 개운법사의 법문을 믿어라. 종국에 인간은 단순한 미식에 귀의한다.

평안도 하면 구성, 성주, 성천 같은 지명이 떠오른다. 그곳의 풍광, 언어, 음식은 문학으로만 남아 있다. 가 볼 수 없는 북녘의 낯선 언어들, 상상으로만 그려보는 그쪽 음식과 맛들. 특히 북한 음식에 관한 다채로운 시와 글을 남긴 백석의 흔적을 생각나게 한다. 한국동란을 피해 내려온 평안도 사람들이 금병산 아래 숯을 구워 파는 사람이 늘어나 숯골이 되었고 그들은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며 냉면을 만들어 먹었을 것이다. 원래 그대로 맛을 재현했는지 그 동안 조금씩 변형을 거쳤는지 알 수 없지만 평안도식 냉면 원형을 가장 많이 보존했으리라 여겨진다.

겨울철 유성의 경하호텔에서 진한 사우나를 댕기고 난 뒤 숯골 냉면을 먹는 코스도 좋다. 냉면 사리는 희미한 향이 은은하고 그다지 질기지 않은 편이다. 꿩고기는 닭고기보다 덜 비리고 고소하다. 숯골 냉면은 밀면 같이 면이 육수에 금방 불어나 맛이 흐려지기에 바로 먹는 쪽이 좋다. 본연의 슴슴함을 느껴보고 싶다면 겨자와 식초를 넣지 말고 시식해 보길 권한다. 인근 수운교 본당은 경복궁을 지은 목수가 설계, 제작한 건물로 특이한 건축미를 뽐낸다. 금병산 정상 둘레 길을 2~3시간 따라가다 보면 적오산성 아래 원자로설계개발단에 닿는다. E&C

Writer 김 종 국 홍보팀장

350년 역사와 함께 해온
경주교동법주

대부분의 전통주 취재요청과 달리 완강한 거절 끝에 무한한 겸손과 무한한 자부심이 돋보였던 최석윤님(작고한 배영신 초대 기능보유자의 며느리의 따님)에게 취재를 승인받았다. 한정수량만 빚는 가양주이기에 외부에 알려지면 도리어 곤란하다는 설명이었지만 경주 최씨 가양주에 대한 자존심이 묻어났다. 경주교동법주는 경주시 교촌안길 최씨집성촌 내에 최부자집과 맞닿아 있다. 최부자집 본채는 250년 교동법주 본채는 370년이 뛰어 넘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동소주, 과하주 등은 시도지방 무형문화재이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술은 술이 익으면 문배나무 향이 난다는 평안도 지역의 문배술(김포, 1호, 소주), 충남 당진시 면천면의 면천두견주(2호, 명약주)와 함께 경북지역의 교동법주(경주, 3호) 3가지로 '전국 3대 명주'로 꼽힌다.

9대 진사(가문 육훈 중 하나가 '진사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다) 12대 만석으로 널리 알려진 경주 최부자집 가양주인 경주교동법주는 원래 궁중 술이었는데 빚는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어 법주라고 불렸다. 2014년 고인이 된 배영신에 이은 2대 기능보유자 최경(77세)의 10대조로 조선 숙종 때 임금의 수라상을 감독하는 사옹원 참봉을 지낸 최국선이 낙향하여 빚은 술이다. 조부인 최진립 장군이 임진왜란 때 공신이어서 음서제로 궁중에서 일할 수 있었단다. 후대에 양조법은 최부자댁 며느리들에게 물려져 전통이 계승하여 뿌리깊은 맛이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금복주의 700ml 보급주인 경주법주와 경주교동법주는 제조방법이나 맛과 향이 전혀 다르다. 교동법주의 색은 밝고 투명한 미황색을 띄며 곡주가 갖는 향긋한 냄새에 이어 달큰한 술맛을 자랑한다. 달큰한 맛은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재료의 함량이 많아서라고 한다.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해외서도 직접 구입하려 방문하고 있을 만큼 높은 품질은 경주교동법주가 경주 최씨의 자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까닭이다. 경주교동법주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주법주와 비교되는 것 자체가 불쾌할 수도 있을 정도다.

경주교동법주 주원료는 토종 찹쌀, 물, 밀로 만든 누룩이다. 물은 예전에는 집안의 우물물을 팔팔 끓인 다음 식혀서 사용했는데 현재는 위생을 고려하여 수돗물을 사용한다. 일단. 찹쌀로 죽을 쑤고 여기에 누룩을 섞어 발효시켜 밑술을 만든다. 이 밑술에 찹쌀 고두밥과 물을 혼합해 본술을 담근 뒤 50일 동안 독을 바꿔가며 제2차 숙성과정을 거쳐 술을 담는 방법으로 100일 이상을 둔다.

경주교동법주는 가양주 중에서도 유통망이 빈약하고, 살균처리를 아예 하지 않은 생주를 그대로 팔기 때문에 원래의 신선한 맛과 향을 강조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1개월로 짧아서 경주 밖의 매장에서는 구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으나 가격이 저렴하지만은 않다.

일반적으로 육포, 어포, 전, 집장, 실과, 약과, 전과, 다식, 북어보푸림 등 특별한 것이 어울리지만 경주 최씨 가문의 고유 김치인 사연지(실고추에 버무린 갖은 양념 속을 배추잎으로 싸 넣어 담백 시원한 맛의 보쌈김치)가 있단다.
입구의 최부자집 안내판에 소유자가 영남대학교로 되어 있어 의아했다. 현재 최씨 고택을 비롯한 교동의 대부분 땅과 가옥은 영남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단다. 자료를 찾아 보니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마지막 만석꾼 최준 선생(1970년 작고)이 모든 재산을 쏟아 부어 대구대학을 세웠고 청구대학과 합쳐져 영남대로 바뀌는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아픈 내력이 있단다. 경주 최씨 집안의 마지막 부가 더 나은 마무리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E&C

주소 : 경북 경주시 교촌안길 19-21(교동법주)
전화 054-772-2051
(경주고속버스터미널·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로 5분 소요)

선산 장날에 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쇄되었던 경북 구미시 선산 오일장이 5월 7일 다시 열렸다. 근래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브랜드 몰과 청년길 몰(청년 상인 육성)도 만들었다. 현대와의 조화, 젊은 세대의 일자리 창출, 소비자 끌어들이기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이다. 최근 회사도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경북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선산장은 경북에서 가장 큰 전통장이며 김천에서 국도로 40분, 고속도로를 타면 30분 이내 닿는 지근에 있다. 선산봉황시장을 알리기 위해 취재하였다.

하늘을 오르려는 야곱의 사다리는 홀로 올라가는 외로운 길이고, 영혼의 시나이 산에서 하산하는 이는 아래에서 민중과 시장을 만난다. 상승은 오감을 닫고 세상을 지우고, 하강은 오감을 열어 현란한 세상을 구경한다.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과장스럽게 알록달록 다채롭고, 과감한 부조화의 무질서 속에 조화가 나타난다.

녹두빈대떡과 수제떡갈비가 철판 위에서 지글거린다. 자색 수수부꾸미는 이불을 개고 한 옆으로 돌아누웠다. 석쇠불고기 굽는 통에서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른다. 여름철 나오는 우뭇가사리 콩국을 보았다. 고소한 콩물에 검정깨를 띄웠다. 한천(우무)이 목젖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청량감을 맛보았다[0.5리터에 3,000원]. 부산에는 여름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펄펄 끓는 콩물에 유부 넣은 콩국과 양배추 계란토스트를 함께 먹는 습식이 있다. 오늘은 시끌벅적한 선산의 이칠장이 선 날이다. [달력에서 4와 9과 붙으면 49장, 선산 장은 2와 7일이 들어간 날 장이 서는 27장이다. 5일 간격으로 오일장이 열린다]. 선산장에는 유난히 도넛과 꽈배기 그리고 야채튀김 장사꾼이 많아 보였다.

선산장은 낙남루(洛南樓) 읍성 바로 뒤편에 있다. 조선초기부터 5일장이 섰던 곳이다. 1967년 이전에는 우시장도 있었으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철따라 주변에서 생산되는 채소와 사과, 배, 포도, 참외, 수박 등의 과일류, 참깨, 땅콩, 선산약주 등이 주로 거래된다. 선산장의 규모는 유성장, 신탄진장과 크기가 엇비슷해 보인다. 옥천의 묘목시장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묘목, 묘종, 분재 파는 상인이 제법 있었다. 다양한 다육식물은 모두 1,000원으로 도시에서 파는 반값 이하이다. 선산장 주변에는 칼국수, 보리밥, 선산곱창 식당들이 군데군데 있다. 미군물품의 탄약통(ammo box), 반합, 군복, 수통도 그리고 골동품류의 유기 그릇 장수도 보인다.

허리가 구십도 꺾인 할머니가 입안을 헐헐 거리며 옆을 걷는다. 시골 아낙의 손에는 어린 딸의 고사리 손이 잡혔다. 낫과 호미를 고르는 투박한 남정네의 손길도 보인다. 천막을 꿰뚫는 오월의 햇살에 눈이 부시다. 그 빛은 천막을 통과하여 묵직한 사각 칼로 닭의 배를 가르는 좌판이 붉은 필터를 끼운 듯 홍색으로 물들어 눈이 어지럽다. 흰 털과 검정 털의 오골계는 날이 더운지 부리를 벌리고 짧은 혀를 헤헤거린다. 그 사이 칠면조 병아리는 바닥에 깔린 무청을 쪼아 먹는다. 친칠라 털빛 토끼는 철장 안에서 씰룩씰룩 코를 움직이며 배를 깔고 누웠다. 토끼의 눈은 양옆에 붙어 전후좌우를 동시를 볼 수 있기에 긴 귀와 어울려 앙증맞아 보인다.

김천, 거창, 상주, 구미는 산이 많은 공활한 지대이다. ‘면’은 마을로 산재되어 넓게 퍼져 있다가 그 중심의 ‘읍’에 사람들이 모여 생필품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읍’이란 사막에 쏫아난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한적한 산과 들, 하천을 지나다 길 양옆으로 갑자기 우체국, 약국, 목욕탕, 농약상, 철물점, 병원, 농협, 시장이 나타난다.

배후의 물리적 공간 ‘면’은 그대로 있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교통이 발달하자 지역인은 ‘읍’을 건너뛰고 물자가 풍부한 도시를 찾는다. 유럽은 전통시장에 골동품, 화훼, 중고서적, 이색 카페나 펍(pub)을 추가하고 여기에 축제를 덧붙인다. 외부인을 불러들이려는 고육지책이다. 일본의 재래시장은 스시 도시락(뷔페식으로 저렴하게 판매) 때문에 찾는다. 지역시장을 살리려면 원모심려(遠謀深慮)의 기획과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다.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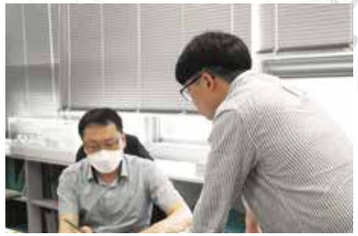
우성스페이스 건축사사무소

WOOSUNG SPACE ARCHITECTS & ENGINEERS

우성스페이스 건축사사무소는 1990년 창립이래 건축설계(Architecture Design) 및 엔지니어링(Engineering) 업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건축설계사무소로 성장해 왔으며,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급변하는 건축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사회적 욕구(NEEDS)를 충족시켜 왔다.

우성스페이스 건축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축,구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에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전력기술,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두산중공업, 포스코 건설, 삼성물산, KCC건설 등 국내 유수(有數)의 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다양한 분야의 건축설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원자력분야, 발전 및 화공플랜트 분야, 일반산업플랜트, 일반건축분야의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 분야 사업은 한국전력기술과 2011년 건축, 구조 분야에서 협력업체로 등록한 이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지원시설, 한울본부 종합정비 공작건물, 월성본부 비상전원 설비보강 사업의 건축설계를 수행하였고, 한수원에서 발주한 원전본부 비상대응설비 통합보관고 신축공사, 신고리 3,4호기 이동형설비용 통합보관고 신축공사의 전체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발전플랜트 사업은 석탄화력, 복합화력, 열병합,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구분되는데 석탄화력 발전소 건축설계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선 강릉안인화력, 고성하이화력, 신서천화력, 삼척그린파워 1,2호기, 삼척블루파워 발전소의 건축설계를 수행해 왔으며, 해외 프로젝트는 베트남 NGHI SON 2 TPP Project, 인도네시아 KALSEL-1 COAL FIRED P/P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또한 이런 석탄화력 발전소 설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복합화력, 열병합 및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소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발전소 설계의 특징은 3D 설계라고 할 수 있다. 3D 설계가 대세를 이룰 것을 선재적으로 판단하여 REVIT, TEKLA, SP3D 등 다수의 3D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들 재교육을 실시하고, PILOT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서 본 프로젝트 수행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화공플랜트 사업은 폴란드 EGAT 프로젝트, 우즈베키스탄 UTAN 프로젝트, 이라크 KARBALA 프로젝트, 롯데케미칼 4EOA 프로젝트, 롯데 베르살리스 SR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건축 및 산업시설 사업은 다양한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그에 걸맞는 디자인과 기능을 충족해야하는 설계 특성상 건축과 구조의 기술력과 경험뿐 아니라 디자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인허가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분야이다. 주요 실적으로는 현대제철 축구단 훈련시설, 국내 최대 유리공장, 대형 물류센터, 냉연설비공장의 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다수의 설계 공모전 참여 및 수상 경력을 통해 디자인 및 설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우성스페이스 건축 임직원(건축사3명, 기술자 25명)은 평균 근속년수 10년 이상에서 보여지듯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가고 있으며, 건축설계 및 플랜트 분야에서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설계와 엔지니어링 분야(구조, BM, 3D설계)등 건축설계 업무 전반에서 고객에게 최상의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와 인정을 받으려 노력하고 있다.E&C

시집

햇볕 좋다

권이영 지음 | 2020년 5월 20일 출간 | 11,000원

힘차고 우렁찬 말들이 아니라
낮게 가라앉아 있는 말,
조근조근 들릴 듯 말듯한
어조의 말들이 불러내오는
포근한 긍정

2003년 첫 시집 『천천히 걷는 자유』 이후 두 번째 시집.

시집이 남발되는 시대, 범박한 유행 풍조에 실린 언필칭 시인들이 혼재된 세태 속에서 권이영 시인을 만나는 것은 기쁜일이다. 그의 시를 읽으면 마음이 밝아진다. 밝은 마음을 갖게 해주는 시를 접하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는 현실비판을 노래할 때도 그 궁극적 지향은 긍정의 지평을 향하고 있다. 그 포근한 긍정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권이영 시인은 우리회사에 근무 후, 1999년도에 정년퇴직하신 분입니다.

경제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존리 지음 | 2020년 1월 15일 출간 | 15,000원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을 뿐 아니라 성실하여 더 근면하게 일한다. 그럼에도 OECD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1위의 나라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자는 돈에 대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자본이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음반

G.RIUM ENSEMBLE(그리움 앙상블) 〈엄마야 누나야〉

2019년 5월 4일 발매 | 유니버셜 코리아 | 17,800원

음악이 전하는 행복을
만나기 위해 모인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연주자들 '그리움 앙상블'

'엄마야 누나야'는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라온 동요와 민요를 편곡하거나 이를 주제로 새롭게 창작한 곡이 담긴 앨범이다. '어머니 마음', '퐁당퐁당', '오빠 생각', '엄마야 누나야', '섬집 아기', '아리랑', '새야새야', '고향의 봄' 등 12개의 음악은 작곡가 김한기, 홍승기, 양준호에 의해 재해석되었다. 익숙한 멜로디, 재치와 유머를 곁들인 동요에 수년간의 연구로 탄생한 주법이 한국 고유의 정서에 매력을 더한다.

영화

반도

2020년 7월 개봉예정 | 연상호 감독 | 115분

전대미문의 재난 그 후 4년
폐허의 땅으로 다시 들어간다!

4년 전, 나라 전체를 휩쓸어 버린 전대미문의 재난에서 가까스로 탈출했던 '정석'(강동원)은 바깥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반도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제안을 받는다. 제한 시간 내에 지정된 트럭을 확보해 반도를 빠져 나와야 하는 미션을 수행하던 중 인간성을 상실한 631부대와 4년 전보다 더욱 거세진 대규모 좀비 무리가 정석 일행을 습격한다. 절체절명의 순간, 폐허가 된 땅에서 살아남은 '민정'(이정현) 가족의 도움으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고 이들과 함께 반도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로 한다.

역사

절멸의 인류사

사라시나 아사오 지음 | 2020년 6월 11일 출간 | 값 14,800

지난한 절멸의 과정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생존전략!

"약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언뜻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주장은 지난한 진화를 거치며 만물의 영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핵심적인 논의로 작용한다. 강한 완력도, 날카로운 이빨도 없었던 인류의 조상은 어떻게 700만년이라는 시간을 견뎌 살아남았을까? 왜 인류는 불편하고 생존에 불리한 특징들을 발전시키고 후대에 물려주었을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인류가 될 수 있었을까?

교양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가

한네 튀겔 지음 | 2020년 6월 8일 출간 | 값 16,000원

우리가 청결할수록 세상은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어간다

매일 우리는 몸의 오물을 씻어내고, 집안과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화학물질과 미세 플라스틱이 든 갖가지 제품을 쓰고 버린다. 하지만 청결을 위한 인간의 소비 뒤에는 각종 쓰레기와 함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남는다. 이 책은 대량소비 문화의 '청결사회'가 환경과 건강에 어떤 위협을 주는지 밝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는 책이다. 저자는 "인류가 만들어낸 '쓰고 버리는 문화'에서 생산된 상품은 소비된 뒤에 '쓰레기'의 형태로 우리에게 복수한다"고 지적한다.

드라마

드라큘라

BBC 제작 | 넷플릭스 등 방영중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어둠의 주인 드라큘라.
그가 새로운 이야기로
되살아 난다.

드라큘라의 전설이 새롭게 진화한다. 핏물로 뒤덮인 그의 죄악, 생생한 사연으로 되살아나는 어둠. 수백 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그의 진정한 약점은 무엇일까. 처참하게 망가진 채로 신의 보호를 구한 남자, 한 수녀가 그를 찾아와 지난 사정을 캐묻는다. 하커는 드라큘라 성에서 무슨일을 겪었을까. 그 기이한 죽음의 미로에서. BBC제작, 셜록 제작진의 신작.

다큐

10대 사건으로 보는 제2차 세계대전

넷플릭스 제작 | 넷플릭스 등 방영 중

진주만과 디데이, 드레스덴 폭격.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 순간들이 되살아 난다.

제2차 세계대전의 향방을 결정지은 사건들. 참혹한 비극으로 남은 그 순간들이 생생한 컬러의 영상으로 되살아난다. 진주만에서 디데이까지, 목격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생생한 자료영상과 날카로운 통찰로, 인류를 덮친 참혹한 비극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코로나19 극복 광고 기획이 무산된 이야기

자료협조 : 국방부, 김기덕 작가

2019년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영문으로는 COVID19 (Corona+Virus+Disease+2019년도)가 국내에서도 크게 확산되자 우리회사에서도 2월 21일부터 비상대응추진반이 설치되어 연일 대책회의가 열리는 등 국가 사회적으로 각종 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극복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그 일환으로 혁신성장실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되살리기를 주제로 공익광고를 추진합니다.
그즈음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에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코로나19 격리병동 환자를 돌보고 있는 국군춘천병원 소속 육군 전문사관 16기 김혜주 대위의 사진(김기덕 작가 촬영)이 올라옵니다.

홍보팀에서는 김대위의 스토리를 광고로 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코로나 극복홍보로 정부부처의 노력과 기업 이미지가 부각되는 방식으로 말이죠. 홍보팀이 광고시안을 확정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국방부와 협업을 추진하자 2개 부처 모두 잘된 기획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번 광고 주인공인 김혜주 대위의 의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김대위는 함께 고생하는 의료진들도 있어서 본인만 부각되면 곤란하다고 완곡히 거절하였고
국방부에서도 자체 회의를 거쳐 광고기획 협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이 보고 계신 좌측 상단의 광고는 의료진 응원과 코로나 극복사례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표출되는 광고인 셈입니다. 대신 회사는 일반적인 이미지와 캠페인 중심 카피로 3종의 광고시안을 마련하여
본 사보 마지막 페이지에 그 중 하나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E&C

독자와의 수다 사보 뒷풀이

당신은 몇 개의 꽃과 나무 이름을 아시는지요? 풀과 나무 차이만 안다는 사람. 열매나 꽃이 피어야 겨우 분간 간다는 사람. 소나무, 잣나무, 향나무의 종류까지 세세히 아는 사람 등 다양합니다. 식물 이름 외우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간혹 친절히 이름표를 단 나무를 유심히 지켜보지만 돌아서면 까먹고 그게 팽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 헷갈립니다. 작년 본관 3층에 행운목 꽃이 피어 진한 꽃향기에 가두어져 취하는 행운을 맛보았습니다. 행운목도 꽃핀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녘에 천리향과 치자꽃이 피면 그 달콤하고 농밀한 향기는 가슴 설레게 합니다. 배롱나무는 일본에서 '원숭이도 미끌어지는 나무'라고 부르는데 나무껍질이 없습니다. 대나무처럼 가지가 매끌매끌하지요. 꽃이 피고 지면 백일 간 꽃구경을 할 수 있다고 백일홍이라 합니다. 여름철 자귀나무는 연자색 부채꼴 모양의 분홍꽃이 핍니다. 주변에는 섬잣나무, 스트로브잣나무, 가이즈카 향나무, 주목이 지천에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돌발퀴즈

1. 6월 4일 중국상해핵공정연구설계원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중국산 마스크 'O',000개를 회사에 기증하였다.
2. 선상장은 5일장으로 달력의 'O'일과 7일에 장이 선다.
3. 러시아의 원자로 노형 VVER의 V는 영어 이니셜 'O'에 해당하는 러시아어로서 원전에 사용하는 냉각재 이름이다.

'O'에 들어가는 숫자 2개, 알파벳 1자는 무엇일까요?

응모방법

'O'에 들어가는 숫자와 철자를 **2020년 7월 30일까지** rainbow@kepco-enc.com으로 퀴즈를 포함하여 독자의견, 이달의 한컷을 보내주신 독자들께는 각 5인을 추첨하여 도서문화상품권 등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참여 안내

7/8월호를 읽고 좋았던 기사나 부족했던 기사등에 대한 독자의견, 명사추천, 읽고 싶은 컨텐츠, 써클소개, 취미생활, 직원가족 추천, 맛집/전통주 추천, 영화평, 시, 수필, 꽁트, 소설, 사진 등 제한없는 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이 채택될 경우 소정의 기념품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 **돌발퀴즈** : 도서문화상품권 2만원

- **공만식** (원자력사업관리실 사업운영팀 부장)
- **이보현** (원전O&M사업그룹 처장)
- **고경민** (유체계통설계그룹 차장)
- **최광순** (원자력 사후관리사업그룹 차장)
- **소리** (혁신성장실 혁신경영팀 인턴사원)

◆ **이달의 한컷!** : 커피쿠폰 1만원

- **서경희** (원자력사업관리실 사업운영팀 차장)
- **이의석** (기계설계그룹 과장)
- **배영진** (원자력사업관리실 사업운영팀 부장)
- **전형원** (혁신성장실 사회적가치팀 대리)
- **이승욱** (원자력사업개발처 해외개발팀 차장)

◆ **독자의견** :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

- **권이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홍민기** (원자력사업처 기술운영팀 부장)
- **송원섭** (정보보안실 처장)
- **노정화** (원자력사업관리실 사업운영팀 대리)
- **박수연** (원자로사업개발처 개발기획팀 사원)
- **김아영** (마케팅전략실 마케팅총괄팀 사원)

지난호 사보를 읽고(독자의견)

• 5/6월호에 실린 <은자골 탁배기>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막걸리의 구수한 맛에 빠졌습니다. 막걸리만큼 한국의 맛을 대변하는 친숙한 술이 또 있을까요? 더구나 제가 나온 고려대학교 교주(?)가 막걸리이고 각종 모임에서 '막걸리 찬가'를 목청껏 외치는지라 더욱 정겹게 읽혔습니다. 언제 김천에 다시 가면 <은자골 탁배기>집에 들러 두부와 김치에 곁들여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권이영 / 시인, 전 직원, 1977.06.01-1999.02.28 근무 전 한국해비타트 고문)**

• 명사칼럼에 100세 철학자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하시는 김형석 명예교수님을 추천합니다. 사보가 예전에 비해 내용이 풍성해지고,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 참여 코너가 많이 생겼고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가 풍부해져서 좋습니다. **(원자력사업처 기술운영팀 홍민기 부장)**

• 나날이 다양해지고 읽을거리기 많은 콘텐츠 덕분에 팍팍한 생활에서도 사보를 기다립니다. 동료들이 사는 이야기(가족탐방)가 좋았고 은자골 막걸리가 매우 참신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코너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협력업체 소개는 보안점검 차 방문 시 시간에 쫓겨 연혁, 수행업무 등을 자세히 파악하기가 어려웠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업무나 생활에서 도움이 되도록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 소개도 요청합니다.

(정보보안실 송원섭 처장)

• 퇴직을 앞두고 코너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5,6월호 속 이창남 처장님의 감사하는 자세와 열정적인 태도를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혁신성장실 사회적가치팀 김연 사원)

•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없으나 안면이 있던 분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랑스런 한기인> 코너가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전략실 마케팅총괄팀 김아영 사원)**

• 도서/영화/드라마/음반/다큐 등을 소개하는 <CULTURE> 란을 항상 체크하는데 비중이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원자로사업개발처 개발기획팀 박수연 사원)

• 사보가 예전에 비해 내용이 풍성해지고,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가 많이 생겼고, 한기 직원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가 풍부해져 KEPCO E&C Family에 걸맞는 사보가 된 것 같습니다.

(원자력사업관리실 사업운영팀 노정화 대리)

• 대한민국 곳곳의 관광명소들을 역사와 더불어서 어떠한 전통이 얽혀 있고 이야기가 이어져 오는지 단순 설명보다 자세히 소개해 주는 포토에세이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혁신성장실 윤리문화팀 김태호 사원)